

미혹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훈 -요한이서-

신명기 13:1-3, 요한이서 1:7-11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요한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1)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다.

① 요한복음은 가장 쉬운 복음서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기록한 은혜로운 성경이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였다. 가장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 기대 있었던 제자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남긴 축복받은 훌륭한 사도였다. 그래서 새가족은 요한복음을 50번, 100번만 읽으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질 것이다. 요한복음은 또한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데, 삶에 적용할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우리가 요1:12을 외우지 않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제 요한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성경을 예기적으로 짜내면 한 권이 떨어지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짜내면 한 구절이 떨어지는 데, 그것이 요3:16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게시받은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요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실수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신 복음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를 아가페(αγαπη)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φιλεω)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것이다. 두 번 물어도 똑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맞춰주신다.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맡겨주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랑을 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한다.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②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어렵다. 비유와 계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미혹하는 자, 이단들이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가 다 틀리게 해석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 성경을 조금 알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국어를 못 한다. 틀린 내용을, 더 모르니까 실수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탄 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신천지는 백마를 실제로 끌고 와서 이만회가 타고 잠실운동장에서 돌도록 했다. (웃음) 나도 끌고 와 볼까. (웃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백마 탄 자가 이긴 자라는 것이다. 그런 주장이 이만회가 원조가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이 전부 백마 타고 사진 찍은 적이 있었다. 나도 그 사진을 보고 놀랐다. 전도자들은 백마 타고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웃음) 사단은 미제 일제 국산이 따로 없다. 다 똑같은 것을 한다. 그래서 속이는 것이다. 거짓의 아버,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존 교회는 바벨론이니까, 자기들이 추수꾼으로 와서 속임수를 쓰면서 알곡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앞에 있어서 말씀을 생명 결고 들으면 은혜받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볼 때는 가라지들이다. 꼭 예배시간에 교외 양쪽 끝까지, 기둥 뒤쪽에 앉아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알곡이라고 부른다. 마귀의 알곡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주님께 선택받아야지, 신천지한테 선택 받으면 되겠다. 요한은 짧은 요한이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나는 대학 때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읽고, 책도 열 권 이상 봤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표현해준 것이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펄박이 와도, 임박한 종말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 신천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이라고 하는데, (웃음) 요한계시록이 세워질 만큼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므로, 펄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승리 하라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부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된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면 된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전도운동 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오실 때 만나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 땅에

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장수해 보려고 버티지 않나? 그런 것은 버리시기 바란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고통도 주는 것이다. 세상을 초월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였다. 부귀영화, 왕의 진미가 필요하지 않았다. 죽어도 괜찮았다. 내가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씨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2)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이서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메시지를 개인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도 요한이 여러 성경을 썼지만, 초대교회와 요한이서에 나오는 부녀와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는 딱 세 가지라는 것이다.

①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진리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이단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성경에는 전체의 흐름이 있다. 우리보고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인가? 문동병 고치고 눈먼 자 뜨게 하라는 것이 흐름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인 것이다.

② 두 번째는 사랑이다.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라는 것이다.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네!' 한다.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되어 있다. 왜 이 당연한 것을 안 하는가.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했는데, 신학생들도 전도를 안 한다. 초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는 십대 때부터 이 축복을 받았다. 되어서는 축복을 받았다. 꼭 훈련 많이 받아야 전도하는 것인가? 워낙 안 되니까 체질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삶에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하게 되어 있다. 당연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3천 제자를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 왜 이단들은 그렇게 부흥하는가? 틀렸는데도 '진심'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랑에 '진심' 하지 않는다. 다른 것, 세상 것에 관심이 많다. 진심의 방향이 복음, 생명 살리는 것이 되시기를 바란다.

③ 셋째는,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의 교훈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베드로, 바울, 요한의 모든 서신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온다. 진리를 붙잡으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고린도교회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단의 교리를 막으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정리해서 준 것이 히브리서다. 이 세 가지를 다 한 것이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의 절대 목표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란다. 첫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게 희미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된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게 된다고 하지 않나?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고,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고, (웃음) 그런데 그 목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내가 얼마 전이었다면, 천국에서 여러분은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십자가 설교를 누구보다 많이 했지만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시다.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신학박사, 유명한 목사가 교백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복음이지만 아직도 이 땅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가? 세상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신중 영지주의자인 것은 아닌가?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않나. 그렇지만 문제 생기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으시는가? 발발박박 살아나지 않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주님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건강관리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라.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데, 뭐가 좋고 뭐가 좋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거 없는 것, 임상실험 다 한 것도 아닌 것을 목사가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과식 안 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의사 말 잘 들어야 하는 것을 두고, 뭘 먹으면 된다고 만병통치약 이야기를 하는데, 그 뿌리가 이 육신적인 것 아닌가. 둘째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단의 잘못된 교리와 교훈에 빠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다원주의, 동성에 같은 데에 관심 가지면 빠지게 된다.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인생이 이상하게 망가진다. 참 진리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면, 인사하다가 동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공산주의의 뿌리와 체제를 모르면 넘어가게 된다.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참 진리, 참 지식으로 가야 한다. 이단에게 넘어지는 사람은 거짓된, 틀린, 불완전한, 잘못된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님 성도들은 현대판 영

지주의에 빠져 있다. 구원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을 머리로만 안다. 삶이 안 되고 성장도 변화도 안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거듭나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나. 마라톤을 하는 현장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선수의 자격이 없다. 천천히라도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만 알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다. 참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다. 참 복음, 참 진리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대화를 가졌다면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백억 원 수준도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1. 대표적인 이단들과, 그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

(1)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적인 이단들과, 성경은 어떻게 이단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가장 성장하는 것이 신천지이고,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의 증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물몬교, 뉴 에이지, 종교통합, 이런 것들이 있다.

① 가장 큰 문제가 계속 변질되고 있는 천주교다. 한국에 교황이 왔을 때 어땠는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성모승천축제를 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천주교인들이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거짓을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불신자는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천주교보다 뛰어나야 한다. 불신자는 삶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 한다. 내 힘으로 그렇게 못 한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종교가 된다.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주님이 해 주세요요.” 이게 복음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②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오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1984년 이후에는 새 언약 이만회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44,000명이 세워지면 새 하늘 새 땅이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144,000명이 넘었는데 안 온다. 그래서 신천지는 통계를 말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이만회는 족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만회가 죽어도 또 거기에 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의 램프가 되면 안 된다.

③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는 안상홍진화이단, 율법적이다. 토요일을 지키고 율월절을 지키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다. “52주 중에서 몇 주까지 빠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 했다. 그런 것이다 율법이다. 화체절을 이야기하면서 떡과 잔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안상홍이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으므로 안상홍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이만회가 하는 소리도 그렇다.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자요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화체설, 그 잔이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된다 하는 소리는 천주교에서 천 년 전부터 이미 해온 소리다. 역사 공부를 안 하니 그런 거짓말을 믿고 속는 것이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르게 전달하면 이단들까지 살려낼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가 땅과 하늘을 잇는 영생하는 자라고 했는데 죽었다.

④ 물몬교도 마찬가지로. 제칠일안식일교가 현대판 율법 이단주의의 원조다. 144,000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하는 압박한 종말론 주장을 하는 자들의 뿌리가 제칠일 안식교다. 그들의 사상이 율법적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다. 빌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율법에 묶인 노예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제칠일안식일이나 물몬교 같은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진짜 잘 한다. 물몬교도들은 커피를 안 먹는다. 건강보조제의 70, 80%가 물몬교 본부인 유타에서 생산된다. 건강관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건강관리 잘 하고, 아픈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숨 쉬는 동안 복음 전하고, 부르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 해야 이단을 이기는 것이지, 근거도 별로 없는 건강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마라.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복음이다. 치유센터 사역도 그들이 더 잘 한다.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한다. 영적으로 치유되면 나머지도 살ान다. 이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한다.

(2) 거짓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세가 먼저 경고했다. 신13:1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오” 이적과 기사, 뿔 고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 육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봐야만 하고 느껴야만 하고 체험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다. 열의 교회가 이런 것을 많이 선전하는데, 이런 기적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13:3에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단들에게 허락했다고 했다. 꿈에, 기적이 관심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 증거 없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성령충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렘28:15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로부터 거짓말을 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영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이다. 미제, 일제, 국산이 없다. 하는 것이 똑같다.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같은 사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원래 똑같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단들이 잘 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율법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조금 발버둥친다는 것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렘23:16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열의 교회를 보면 예언학교를 만들어뒀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성경에 예언이 다 나와 있지 않나? 미래를 꼭 알아야 하는가? 점쟁이들이 더 잘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맡기고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된다. 괴로우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주님께 묻고 그러다가 깨닫고 그제 신앙생활이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마24:11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24:24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할 수 있다. 흐름이 틀렸다. 그것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악용하는 것이다. 벰후2:14에, 하나님이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일의 틀에 맞추면 안 된다. 기적 일어나서 병이 고쳐질 수도 있다. 그 때 봐야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정명석 이만회 문선명이 다 그랬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그들을 견제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한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2. 참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인 참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1) 요이1:5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참 복음과 진리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부녀는 교회의 중직자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명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단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까지 파고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다. 신천지는 잘못된 집단이지만, 그들에게 빌미를 준 것은 기성교회였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았다면 이단이 틈탈 수 없다. 신천지는 성경공부를 한다면서 기성 교회들의 잘못을 다 이야기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주장하거나 넘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

(2)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과 함께 참 사랑까지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이단에 버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빠지고, 나 중심적이고, 내 이권을 주장하고, 내 자리를 생각하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십자가를 믿는 현대판 영지주의다. 부족함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이서를 통해서 말씀한다. 단순히 영지주의자들을 이기기 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장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삶처럼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교회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교리로 확정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공의회에서 이런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삶, 사랑을 다 말하지 못했으니, 그 시대의 문제가 이 시대에 또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믿으면서도, 삶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은, 요일4:8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했던 것이다. 요일4:20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여러분,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참된 실천이 나온다.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진리를 알면 참된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니,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지식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계속 훈련받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을 붙잡기 위해서이다. 이단들은 거짓 지식을 가지고 거짓 교단을 만들어 놓았지 않은가. 참 복음, 참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1)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지 않으면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인다운 참 사랑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성을 말씀과 훈련과 예배에 집중시켜야 한다. 세상 지식도 잘 배우야 좋은 회사도 세우고 좋은 가정도 세울 수 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3) 우선은 잘못된 이단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인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는 신종 이단, 아주 진화된 이단이라서, 자기를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 오해되지 않을 정도 되면 새 하늘 새 땅으로 가서 하고 말한다. 그제 신천지이지 않나. (웃음) 동아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게 만든다. 목사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꼭 그런 데 빠진다. 보고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런 데 빠진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복음소식 자료를 찾는 사람에게도 나는 반드시 목사님과 교회에 보고를 한 후에 나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당부한다. 복음이라면 그래야 한다. 더 나아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참 진리, 참 사랑, 참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